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은 만리마시대의 본보기

김 정 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은 오늘 부강조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을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발휘한 당에 대한 충실성과 높은 애국심, 영웅적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됩니다.》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대번영기인 만리마시대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과 기풍에서도 일대 변혁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만리마시대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국방과학전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이 만리마시대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담고있기때문이다.

사람들속에서 발휘되는 혁명정신이 시대의 본보기로 되자면 그것이 해당 시대 사람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담아야 한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만리마시대 참된 혁명가가 지녀야 할 불굴의 투쟁정신으로서 여기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 드높은 애국심, 영웅적투쟁정신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의 근본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이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지닌 충정심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로선,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일관된 충정심이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생명이다. 수령의 품속에서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은 준엄한 력사의 폭풍을 헤쳐오면서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바로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국방과학전사들은 자신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서있는 제일근위병으로 여기고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첨단과학기술성으로 옹호보위한 참된 혁명전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과학자로, 혁명가로 성장하고 대를 이어가며 참된 삶을 누리나가고있는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있어서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 빛내여주시는 운명의 태양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신심과 용기에 넘쳐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

였다. 때로는 친부모가 되시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을 쓰시고 때로는 다심한 스승이 되시여 과학적묘술도 가르쳐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그러기에 국방과학전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최상최대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전사의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결사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권위를 백방으로 결사옹위하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시는 과업에 대하여 언제 한번 그 가능성이나 현실적조건 같은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한몸이 열백조각 난다고 해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투쟁하였으며 그것을 곧 수령의 권위보장과 관련되는 제일중대사로 여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경험이나 조건을 따지기 전에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받아안고 그 실현에 떨쳐나선 혁명전사들이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다.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있어서 국방과학연구는 단순히 과학의 높은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기 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로선, 권위를 보장하는 더없는 영광으로 되었다.

이렇듯 오늘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애국심이다.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없이 헌신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의 전형은 국방과학전사들이며 그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에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끝없는 헌신으로 일관된 참된 애국의 넋이 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이 고귀한 애국심으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가장 준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투쟁정신이기때문이다.

참된 애국은 조국보위에 있다. 다시말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가장 준엄한 조국보위전, 조국수호전에서 발휘되는 사랑과 헌신이 애국주의의 가장 숭고한 표현으로, 그 발현으로 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보위전, 조국수호전은 침략자들과의 힘의 대결이다. 이로부터 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적들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에 의하여 마련되고있다. 오늘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난 대기적과 변혁들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집합체이기 전에 조국의 장한 아들, 참된 애국자들인 국방과학전사들의 가장 뜨겁고 열렬한 애국심이 응축된 애국심의 창조물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지식이 높다고 해도 그 심장이 참된 애국의 열의로 불타지 않으면 조국을 위한 그 어떤 과학적창조물도 이룩해낼수 없으며 그런 과학자는 참된 애국자가 될수 없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자기들의 연구사업을 단순한 과학연구사업으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이는 가장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여기였으며 그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 가슴뜨거운 헌신으로 애국의 한길을 굴함없이 걸어왔다.

참으로 국방과학전사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은 우리의 천만군민에게 참된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그들을 애국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가장 숭고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그 발현으로 되고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영웅적투쟁정신이다.

참된 혁명가의 삶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데 있으며 그 길에서 발휘된 투쟁정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된다.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부강조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열사복무정신으로 만장약된 영웅적투쟁정신을 지니고 누구나 다 시대의 영웅, 만리마기수가 되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시대의 이 부름, 이 요구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영웅적투쟁정신, 영웅적투쟁기풍의 서사시를 새겨가는 참된 혁명가들이 바로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국방력강화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또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만이 선택하고 끝까지 갈수 있는 혁명의 준엄한 길이다.

국방과학전사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과학성, 그 승리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영웅적투쟁정신을 지니고 불굴의 의지로 나라의 방위력강화의 고심참담한 길을 헤쳐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민족사적특대경사를 련이어 안아온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을 온 나라가 다 아는 만리마시대의 영웅으로, 그들의 삶을 최절정으로 올려세워주시였다.

참으로 국방과학전사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을 핵으로 하고 애국심의 숭고한 표현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영웅적투쟁정신인것으로 하여 만리마시대의 본보기로 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시대정신으로 된다.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만리마시대의 본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국방과학전사들이 발휘한 투쟁기풍이 만리마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그들의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기때문이다.

혁명정신은 투쟁기풍을 확립하고 그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높이 발휘되게 된다. 혁명투쟁에서 대중을 투철한 투쟁정신의 체현자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그것을 높

이 발휘해나가도록 하는 옳은 투쟁기풍을 확립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더우기 부강조국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만리마시대에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발휘하는 투쟁기풍은 그들의 일본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오늘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만리마시대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만리마시대에 우리 인민이 발휘하여야 할 투쟁기풍은 자력자강의 일본새로 일관되어야 하고 과학기술론마의 고삐를 틀어쥐고나가는 개발창조형의 일본새가 되어야 하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격형의 일본새가 되어야 한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기풍은 우선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력자강의 혁명적일본새이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과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력자강이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이 확증한 철의 진리이다.

자력자강으로 개척되고 자력자강으로 승리떨쳐온 우리 혁명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자력자강을 절대불변의 무기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것처럼 어렵고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일어나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기적을 안아왔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따라배워야 할 자력자강의 혁명적일본새를 창조하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의 혁명적일본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으로 일관되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투쟁기풍의 발현과정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최강의 높이에 올려세우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인 동시에 자력자강의 투쟁기풍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다른 모든 사업도 그러하지만 국방과학연구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수 없게 되어있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목표도 우리 식으로 세워야 하고 설계와 부분품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하며 그것도 최단기간내에 해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전사들은 자력자강의 혁명적일본새로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과학기술적으로나 군사적요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주체무기들을 탄생시킬수 있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기풍은 또한 남의것을 모방하려는 건본모방형이 아니라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나가려는 개발창조형의 일본새이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은 력사의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인것으로 하여 어렵고 간고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으로 모든것을 창조하며 이룩해나가는 창조적투쟁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그 공고성과 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력사에는 남의것을 모방하고 남의것을 무력대고 숭상하며 따른것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이 사대에 허덕이고 나중에는 운명을 망친 실례가 적지 않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은 그 누구도 도와줄수 없으며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서는 언제 가도 진정한 자기의것을 가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것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나갈 때에만 그 승리적전진을 담보할수 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차대한 사업인 국방력강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개발창조형으로 해나갈 때에만 그 위력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어있다.

국방과학연구사업은 인류가 도달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종합하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첨단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가장 어려운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사업에서 개발창조형의 일본새로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금과 자재, 시간이 많이 드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모든것을 자체로 해나간다는것은 힘든 일이다. 이로부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무기개발에서 다른 나라의 무기개발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 자체로 한다고 하여도 그를 모방하여 견본모방형으로 개발하는 실례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품도 적게 들고 자금과 자재를 비롯하여 모든것을 적게 쓰게 되지만 방대한 침략무력을 단때에 꺾어버릴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언제 가도 가질수 없게 된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주체조선의 국방과학자의 존엄을 걸고 결연히 개발창조형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여 명실공히 침략자의 정수리를 단때에 내리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의 창조적일본새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늘의 창조대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투쟁기풍은 또한 한달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와 같이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비상한 공격형의 일본새이다.

비상한 공격전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것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유일무이한 투쟁방식, 투쟁기풍이다. 만만시련이 천겹만겹으로 막아서도 방어가 아니라 완강한 공격전으로 뚫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우리 인민이 체질화한 공격형의 일본새이다.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적승리가 다발적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것은 국방과학전사들이 우리 당의 련속공격사상으로 무장하고 모든 사업을 공격식으로 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국방과학전사들은 만리마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한달음에 만리를 내닫는 만리마와 같이 질풍같이 내달려 강위력한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공격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들은 순

간의 담보나 후퇴도 허용하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불사신과 같이 불같이 공격 또 공격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갔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국방과학전사들의 비상한 공격형의 일본새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방과학전사, 혁명적일본새